

로컬뉴스



군산 나운2동, 맞춤형복지 제공 지역연대 통합사례 업무협약

군산시 나운2동은 각 지역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를 통합해 효율적인 복지지원 연계 및 협력시스템 강화를 통해 맞춤형복지를 제공하고 지난 4일 '지역연대 통합사례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맞춤형복지 제공을 위해 8개 복지기관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각종 협력활동을 수행해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한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협약을 통해 군산의료원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자 및 위기개입, 중독관리센터는 중독대상자 조기발견·연계,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서비스, 나운2동 주민센터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자원개발·연계, 주공4단지관리사무소는 입주자 안전관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는 가정폭력 상담·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최하삼 나운2동장은 "여러 복지기관의 연대로 사례관리를 통한 제공해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맞춤형복지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 노인의 날 기념식 노인건강증진 한마음 대회

제20회 노인의 날을 맞아 6일 익산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지역 노인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노인건강증진 한마음 대회'가 개최됐다.

익산시가 주최 대한노인회 익산시 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모범노인 등 경로복지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노인공경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경로효친 사상을 몸소 실천한 유공자 40명에 시상표창(모범노인 9명, 효행상 1명)과 대한노인회 지회장표창(모범노인 9명, 효행상 1명), 국회의원 표창(모범노인 20명)이 각각 수여됐다.

이러진 노인건강증진 한마음 대회에서는 다수의 어르신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경기를 비롯해 우리 동네 노래자랑, 트로트 가수의 열띤 공연과 품바 공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어 참여 어르신들을 즐겁게 했다.

전대영 익산시회장은 "노인회는 지속적으로 노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또 국가발전의 주역으로서 노인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익산시가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하반기 복지사업수급자 12월 30일까지 조사 실시

군산시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의료급여지원 등 11개 분야 복지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복지사업수급자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으나, 일부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을 경우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환수 또는 복지 급여를 조정하게 된다.

조사를 통해 급여 감소 및 자격탈락 등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조사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지원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늘푸른학교, 지역 어르신 문해교육 앞장

“못배운 한 풀어줘서 고마워요”

5개소 도교육청 초등학교인정 문해교육 기관 지정

군산시 늘푸른학교가 운영 중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배움의 기회를 놓친 문해 학습자들에게 글을 깨우치게 하는 등 평생학습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늘푸른학교는 시대적 배경과 어려운 환경으로 글을 모르는 비문해자(非文解者)로 살면서 설움을 받았던 고령의 학습자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군산시가 비문해 제로(ZERO) 학습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개설한 늘푸른학교는 45개소 학습장에 55개 과정을 진행 중이며 문해교육사 31명, 학습자는 700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 늘푸른학교 5개소가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인정 문해교육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문해교육 학습자들은 평생소원이었던 초등학교 입학 기회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됐다.

학습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운영하며 기초수학, 영어, 한자, 음악, 미술, 문해한마당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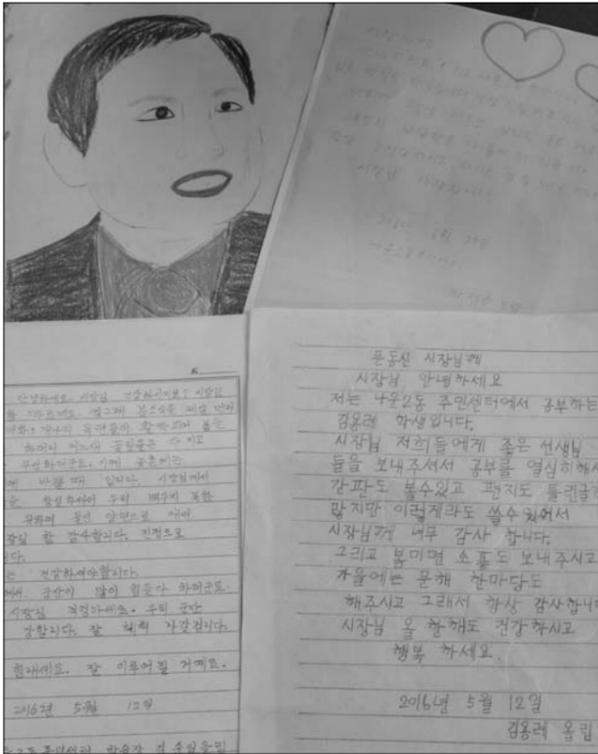
학교에서는 비문해자들의 문해 능력 향상 및 자존감 제고를 통해 생활 문제를 통한 일상생활 불편 해소하고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은행 및 병원 이용, 버스 타기, 핸드폰 문자 보내기, 가족 편지 보내기 등을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종 자격증 취득으로 자긍심 향상되고 한자 자격증 7·8급, 운전면허 취득, 각종 문해교육 행사(전국 편지쓰기대회, 시화전 등)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해교육사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여해 문해교육사 89명을 양성하고 문해교육 활동으로 31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글을 몰랐던 학습자들은 문해교육사들의 노고와 열정적인 교육을 통해 한글을 배워 한자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더 나아가 검정고시에 합격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사제로 양육자 학습자(65·여)는 세 번의 도전 끝에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모르던 양 학습자는 늘푸른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2년 만에 운전면허 취득이라는 아름다운 도전을 했다.

양 학습자는 "늘푸른학교에 있었기에 내 인생의 새로운 꽃이 피기 시작했다"며 "늘푸른학교 교장인 문용신 시장과 담당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해교육을 통해 글을 깨우



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사제로 양육자 학습자(65·여)는 세 번의 도전 끝에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모르던 양 학습자는 늘푸른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2년 만에 운전면허 취득이라는 아름다운 도전을 했다. 양 학습자는 "늘푸른학교에 있었기에 내 인생의 새로운 꽃이 피기 시작했다"며 "늘푸른학교 교장인 문용신 시장과 담당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해교육을 통해 글을 깨우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하수슬러지 최적 대안 마련 공개 토론회

탈수시설 교체·소화조 개선 등 하수처리장 개선 연간 13억 예산절감 효과 기대

익산시는 6일 오후 동산동주민자치센터에서 시민,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수슬러지 최적 대안 마련을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KCN 김경섭 보도제작국장을 좌장으로 손문선 좋은정치시 민빛 대표, 한국환경공단 이준상 과장, 김동욱 공주대학교 교수, 박해영 익산 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하수슬러지 반대대책위 류진택 대표와 장성진 위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29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백지화가 되었으나, 그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계약해지로 인한 시공사 손해배상청구, 환경부 국비 보조금 반환 수차례 요구, 지방부세 감액 위기 등 시 재정적 손실은 필연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2~3년 후 소송이 종결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당면한 후속조치와 향후 익산시 하수슬러지 정책방향을 함께 찾아가기 위해 마련됐다. 시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으로 찾아낸 '하수슬러지 감량

화' 사업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간 의견을 나누고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 됐다.

한편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국비70%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탈수시설 교체, 소화조 개선, 농축조 교반기 교체 등 하수처리장 개선으로 하수슬러지가 약45% 감량되어 연간 13억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15일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개최

'제2회 가천(이길여) 그림그리기 대회'가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전북지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를 통해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수상자는 각 부문별(초·중·고·대상·금상·은상·동상·입선)로 약 250명을 선정, 상과 함께 부상으로 20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 전원에게 기념품이 제공되며, 대상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의 지도교사에게도 감사패가 증정된다.

도화지는 당일 현장에서 제공되며 도화지 외에 물감, 붓, 크레파스 등

필요한 물품은 개인이 준비하면 된다. 대회당일 우천시에는 1주일 연기할 예정이며, 우천안배를 비롯한 대회 소식과 자세한 대회요강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회를 주관하는 가천문화재단은 군산시 대야면 출신의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설립한 재단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다 라는 문화철학을 바탕으로 문화유산답사와 전시공헌학술연구를 비롯해 바다그리기대회, 심청효행대상, 가천박물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 개최되는 바다그리기 대회는 7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최대로 성장한 사례를 바탕으로, 고향 군산도 가천(이길여) 그림그리기 대회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하려는 이길여 총장의 강력한 의지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

/군산=문정곤 기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한울타리 우체통'

군산시 희망복지지원단(단장 최성근)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지원을 위해 시청과 27개 읍면동에 '한울타리 우체통'을 설치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한울타리 우체통'은 생활이 어렵지만 주위에 노출될까 염려돼 상담을 주저하는 주민이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알고 있는 경우 사연을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희망복지지원단이 이를 확인 후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제도이다.

한울타리 우체통은 24시간 상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경우 읍면동 청사밖에 설치했으며, 시청의 경우 1층 로비에 설치해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성근 희망복지지원단장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복지하브서비스사업이 확산돼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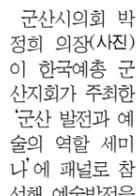


최성근 희망복지지원단장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복지하브서비스사업이 확산돼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

"지역 특색 살린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육성"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사진)이 한국예총 군산지회가 주최한 '군산 발전과 예술의 역할 세미나'에 패널리스트로 참석해 예술발전을 위한 군산시의 행·재정적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정희 의장은 "인간이 좀더 풍요로운 삶과 정신적 자유를 영유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며, "문화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예술이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의 발전에는 가용인력·충분한 투자·활동공간·활동분위기 조성 및 예술인의 자



각으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작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술분권이 지역균형 발전의 시금석이라며 지역적 특색을 잘 살린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을 육성할 것"을 강조했으며, "예술활동 공간부족과 각종 축제의 소용 부재를 비판하고 기존의 예술인프라와 지원정책을 점검 재편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정희 의장은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성과와 문제점을 군산시에 제시해 지역의 문화와 예술이 시민의 색깔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 예술인과 함께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지역축제를 만들어 가는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소방서, 벌집 구조활동 지속적 증가

군산소방서는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10월 현재까지도 벌집 제거 출동이 늘어남에 따라 야외활동 시 벌 쏘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벌집 제거 구조활동 건수는 모두 804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88건)보다 37%(216건)가 증가했다.

이 같은 이유는 때 이른 무더위와 미린장마가 이어지면서 벌 생육 환경이 좋아져 개체 수가 늘면서 벌집 제거 신고가 지난해보다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말벌은 공격성과 독성이 강하며, 장수말벌의 경우 한 번에 쏘는 독의 양이 일반 벌의 수십 배에 달하고 계속해서 침에 독을 주입할 수 있어 공격을 받으면 자칫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다.

말벌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벌집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산행 및 야외활동 때 향수나 스프레이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과 밝고 화려한 계통의 옷을 피하는 것이 좋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벌 개체 수가 매년 늘고 있고 활동량 또한 많아져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벌집을 발견한 경우 무리하게 직접 제거하지 말고 대피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세계유산도시협의회 등 참가

제17차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와 세계유산도시기구(OWHC-AP) 아태지역 총회가 익산시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국내외 35개 도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폐기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안을 20대 국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현행 세계유산이 일반문화재와 동일하게 보존 관리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에 세계유산문화도시 조성하여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13개 회원도시와 지역구 국회의원(19명)이 공동 대응하여 내년 1월 중 재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열린 제2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 총회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유산보유도시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결성된 연합체로 국내외 35개 도시 150여명의 시장단 및 전문가가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를 주제로 아태지역 도시 간 공동사업 제안과 참여방안에 대해 시장단 실무회의와 전문가 워크숍 등 논의를 거쳐 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논의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내외 세계유산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백제왕도 익산의 국제적인 인지도와 위상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